

담당부서 : 사회경제노동과

담당자 : 최서영 주무관

연락처 : 055-211-3455

경남도, 조선업 노동자 복지 향상에 힘 모아

- 경남도, 거제시·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연장
- 25년까지 2년간 추가 지원해 연간 100억원 기금 조성...3만 8천명 노동자 수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3일 거제시청에서 조선업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거제시, 삼성중공업(주), 한화오션(주), 양대 조선사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과 ‘조선업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박종우 거제시장, 이왕근 삼성중공업(주) 조선소장, 이길섭 한화오션(주) 조선소장, 강경섬 삼성중공업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 김돌평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내협력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 기금 출연 연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5년까지 도와 거제시가 24억원을 출연하고 양대 조선사와 각 사내협력회사는 별도 출연계획에 따라 출연하여 기금에 참여한다.

향후 2년간 양대 조선사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양대 조선사 및 사내협력회사 출연분에 국비까지 지원받아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만 8,000여 명의 노동자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2021년부터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과 원·하청 동반성장 및 사내협력회사 소속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3년간 3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자체가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에 비례하여 국비가 추가 지원되며, 지난 3년간 총 29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조선업 사내협력회사 노동자 6만 9,000여 명이 복지혜택을 받았다.

박완수 지사는 “최근 조선경기의 회복으로 노동인력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복지 강화가 노동인력 확보의 유인이 되고, 조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거제를 비롯한 도내 2곳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확대 조성하고, 현장노동자 및 감정노동자 휴게·편의시설 35개소 개선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상호 협력적인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경제노동과 최서영 주무관(055-211-34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